

Effects of Risk Information Component of Media and Knowledge on Risk Controllability

-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

Hae Ryong Song[#], Won Je Kim⁺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risk information component in media and knowledge on risk controllability of the public,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00 participants in Korea and analyzed by the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IBM SPSS 21 and IBM AMOS 21 progra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isk information component in media on infectious diseas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knowledge about infectious diseases. Second, knowledge on infectious diseas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risk controllability. Third, risk information component in media on infectious diseas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risk controllability.

Key words: risk information component, knowledge, risk controllability, infectious disease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발달은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권(information access)을 확대, 강화시킴으로써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위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미디어의 위험정보 제공은 일반 대중이 위험을 회피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 대중에게 특정 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위험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위험과 관련, 미디어의 위험보도 태도는 종종 많은 논란과 비판에 부딪힌다. 미디어는 위험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거나 그 위험 정도에 대한 과장 또는 축소를 통해 중요한 뉴스거리(Gregory & Miller,

[#] The 1st author: Hae Ryong Song, Tel. +82-2-760-0401, e-mail, imokwg@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Won Je Kim, Tel. +82-2-322-6539, e-mail, wonje5@daum.net

1998)로 포장,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는 위험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전달하지 못하고,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정확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추정 등의 문제를 내포하며(Kim, 2012), 자칫 일반 대중에게 위험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H1N1, 이하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감염병 사례들은 미디어의 보도 대부분이 불안과 공포라는 틀 속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감염병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망자나 고위험군, 위기, 비상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여 경각심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고, 국민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Kim, 2009; Kim, 2010). 이는 미디어가 그려낸 위험한 현실이 대중의 위험인식 형성(Gellert, *et. al.*, 1994; Ju & Yoo, 2011)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경우에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과학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Peters & Song, 2012). 전술한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례는 미디어가 위험을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진단이 위험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특정 위험을 보도할 때, 해당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보도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일종의 사회경보시스템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일상의 숨겨있는 위험이나 예측되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ong, *et. al.*, 2012). 특히, 감염병과 같은 위험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위험분야에서 미디어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주체자이면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위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위험정보에 대해 일반 대중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하고 정확한 내용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다(Song, 2012).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은 위험의 정의나 인식, 해결에 걸친 전 과정이 해당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nn, 1992; Yun & Park, 2011).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는 위험정보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Otway & Wynne, 1989), 위험정보 소통은 정부(행위자이면서 관리자), 전문가, 일반시민,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미디어는 각각의 행위자들이나 행위주체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 등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험정보 매개자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위험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일반 대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일반대중에게 위험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보도나 메시지를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 전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위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위험예방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신뢰성 차원에서 뉴스 평가 항목을 전문성이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 등으로 분류하여 미디어의 보도원칙이나 준칙 등을 규명한 연구들은 많으나(Song & Lee, 2003), 미디어가 위험정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구성요건을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감염병과 같은 새로운 위험들의 경우, 일반 대중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관련 지식을 높이고(Singer &

Endreny, 1993), 그에 따라 전반적인 태도나 위협에 대한 통제 여부, 위협인식, 행동 등을 결정한다. 특히, 일반 대중의 경우에 부정적 위협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타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협통제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공포감이 유발된다는 점(Dohle, *et. al.*, 2012; Yang & Kim, 2016)에서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위협통제성은 전반적인 위협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에 대한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식과 위협통제성의 전반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의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들 요인들이 위협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

미디어는 특정 위험과 관련된 일반 대중의 위협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디어가 특정 위험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일반 대중의 위협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nyder & Rouse, 1995). 일반 대중은 위험을 해석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위험을 인식하기보다는 주관적 경험, 즉 직접적인 경험이나 개인 또는 미디어와 같은 특정 매개를 통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Kim & Kim, 2013; McComas, 2006; Singer & Endreny, 2003; Slovic, 1987).

이에 따라 미디어가 위험을 보도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 해설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미디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제목이나 사건 또는 사고, 갈등 중심의 보도를 통해 일반인의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위험발생의 원인을 불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위험 심각

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Kim, 2012; Song, 2013, Song, *et. al.*, 2015).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디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즉, 미디어의 위험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ong & Lee, 2013; Willis & Okunade, 1997). Song & Lee(2003)는 특정 위험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 있어서 초기 사실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상황을 파악,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나 그 영향에 대해 파악,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미디어가 특정 위험상황을 보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써, 어떤 위험이나 위기상황에서 미디어가 가져야 할 조정과 환경감시기능(Yun & Park, 2011)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조정과 환경감시기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위험보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위험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이 해당 위험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더욱이 신종플루나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등과 같이 새로운 감염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때문에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은 미디어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위험상황에 기초하여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신속성과 정확성, 심층성(Song & Lee, 2003), 정보제공의 투명성, 신뢰성, 접근성, 정확성, 전문성, 신속성, 적시성(Park, 2015), 이해가능성, 신뢰성, 적시성, 완전성(Kim, 2015)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미디어의 다양한 위

협정보 구성요건 중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다(Kwak & Lee, 2014; Peters, *et al.*, 2009; Yun, *et al.*, 2013). 특히, 보도의 정확성은 언제나 강조되는 구성요소로써, 위협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적절한 보도기능, 즉 정확한 위협정보 전달은 일반 대중들이 복잡한 위험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Yun, *et al.*, 2013). 이처럼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다소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에 대한 합일된 혹은 일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은 대중의 위협관련 지식을 형성하고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Peters, *et al.*, 2009). 이는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에 따라 보도내용의 맥락이나 해석, 논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추구해야 할 미디어 본연의 가치가 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일반 대중의 미디어 노출은 위험상황에 대한 정부나 관련 조직들의 위협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과 관련될 때, 그리고 통제가능성이 낮다고 지각될 때, 높은 위협인식을 보인다는 점(Choi & Chun, 2015; Dohle, *et al.*, 2012)에서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과 위협통제성 지각 간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지식

일반적으로 지식은 정보탐색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데, 일반 대중의 행동을 예측,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Duhan, 1997; Song, *et al.*, 2014). 위험분야에서 지식은 특정 위험에 대해 개인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Knight & Warland, 2005), 일반 대중의 위협인식이나 위협관련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Siegrist & Cvetkovich, 2000). 이는 일반 대중이 지식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위협을 평가하며(Verbeke, 2008), 그에 따라 위협회피나 대처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결핍은 특정대상에 대한 위

협을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Peters & Song, 2001). 비록 일부 연구들에서 지식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Slovic, 1999; Wang & Lee, 2011), 지식이 여전히 위협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위협 분야에서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위험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객관적 지식이 아닌, 자기 평가에 의한 주관적 지식을 통해 평가할 경우에 자칫 위협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 대중은 자신에 대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위험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은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Alba & Hutchinson, 2000; Yoon, 2014).

한편, 일반 대중의 위험에 대한 지식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새로운 위험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위협관련 지식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위협관련 정보제공은 일반 대중의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일반 대중은 습득된 정보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Fleming, *et al.*, 2006; Jin & Han, 2011; Rousu, *et al.*, 2007) 미디어 위협정보 구성요건은 일반 대중의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실제로 미디어의 위협보도와 지식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Song, *et al.*, 2014). 또한 일반 대중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 해당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식, 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일수록 가정된 위험을 만들어 내며, 가정된 위험은 일반 대중의 공포감을 높인다는 것과 관련된다(Song, *et al.*, 2015). 따라서 일반 대중이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미디어와 같은 외부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

하는 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의존성을 보이며, 신종플루 사례에서 보듯이 미디어가 해당 위험에 대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할 경우에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통제성 지각은 낮아짐으로써 공포와 두려움, 나아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3. 위험통제성

심리측정 패러다임은 사람들의 위험인식이나 위험평가, 위험수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구조(Slovic, 1989)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측면을 보다 많이 고려하는가에 따라 특정 위험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난다(Fischhoff, *et. al.*, 1978; Slovic, *et. al.*, 1984).

심리측정 패러다임 관련 연구들은 사람들의 위험을 지각하는 특성이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Slovic(1987)은 위험의 통제성 여부, 즉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지각될 때 높은 위험인식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Dobbie & Brown(2014)도 자발성과 친근성, 과학적 지식 이외에 위험에 대한 통제성이 위험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Cha(2007)는 기존의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위험인식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위험 통제가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사람들의 위험인식이 높아진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험의 통제성 여부에 따라 위험인식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이 지각하는 위험통제성은 일반 대중의 위험에 대한 심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Renn & Rohrman, 2000; Ulmer, 2001).

보통 위험통제성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정 위험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Lee & Na, 2016; Thompson, 1981). 일반대중들은 감염병과 같이 특정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처했을 때, 미디어와 같은 외부적 정보

를 통해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데(Park, *et. al.*, 2016; Sjöberg, 1999; Slovic, *et. al.*, 1982), 그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지각할 경우에는 정부나 관련 조직들에 대한 불신, 나아가 공포감이 유발,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보자면, 낮은 위험통제성은 공포감이나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해당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미디어는 감염병과 같은 위험을 보도하는데 있어 일반 대중이 감염병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위험정보 구성요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탐색을 통해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 그리고 위험통제성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감염병에 대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일반 대중의 지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감염병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은 위험 통제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감염병에 대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일반 대중의 위험통제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반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 그리고 위험통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내국인이면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전국 단위의 할당표집을 통해 총 1,000

명의 표본을 확보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0명(51.0%), 여성 490명(49.0%), 평균연령 43.38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227명(22.7%), 대학교 졸업 684명(68.4%), 대학원 졸업 89명(8.9%), 그리고 소득은 200만원 미만 247명(24.7%), 201~300만원 221명(22.1%), 301~400만원 200명(20.0%), 401~500만원 143명(14.3%), 501만원 이상 189명(18.9%)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대유행했던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를 주요 감염병 사례로 설정하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당 감염병에 대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 그리고 위험통제성에 대해 측정하였다. 주요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기존의 선행연구들(Kim, 2015; Park, 2015; Yun, *et. al.*, 2013; Peters, *et. al.*, 2009)에 기초하여 비교적 공통적으로 그 중요성이 언급되었다고 판단되는 위험정보 구성요건들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감염병 관련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정확성(객관적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가?), 신뢰성(미디어에 의해 제공된 뉴스는 신뢰할 수 있는가?), 신속성(위험뉴스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이해용이성(배경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정성(제공된 뉴스는 어느 한쪽 기관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되었는가?) 등 총 5가지이며, 설문 문항을 통해 “국내에서 대유행했던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미디어가 보도할 때, 다음과 같은 위험정보 구성요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총 5문항(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이해용이성, 공정성)의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음, 7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 측정하였고, 각 항목의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위험정보 구성요건인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이해용이성, 그리고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6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에 대한 지식은 Peters, *et. al.*(2009)에 기초하여 “해당 감염병(사스,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대중들의 해당 감염병 관련 지식정도는 총 4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모름, 7점: 매우 잘 알고 있음)를 통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염병 관련 지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7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에 대한 위험통제성은 Lee & Na(2016)가 사용한 척도에 기초하여 “해당 감염병(사스,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에 대해 개인적 노력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감염병에 대한 위험통제성은 총 4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점: 개인적 노력으로 통제 불가능함, 7점: 개인적 노력으로 통제 가능함)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감염병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염병에 대한 위험통제성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5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ver. 21 프로그램과 AMOS ver. 21 프로그램을 활용,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타 주요 변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M(SD)	1	2	3
Risk Information Component	5.33(1.27)	-		
Knowledge	4.66(1.09)	.269**	-	
Risk Controllability	4.56(1.36)	.187**	.218**	-

** p<.01

IV.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 그리고 위험통제성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지식($r=.169$, $p<.01$), 위험통제성($r=.187$, $p<.01$)과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지식 역시 위험통제성($r=.218$, $p<.01$)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설검증

본 연구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활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절대적합지수는 χ^2 와 GFI, RMR, RMSEA를 이용하였으며, 증분적합지수는 NFI, IFI, TLI, CFI를 활용하였다. 적합기준은 χ^2 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p>.05$), GFI=.90 이상, RMR=.06 이하, RMSEA=.08~.10 이하, NFI=.90 이상, IFI=.90 이상, TLI=.90 이상, CFI=.90 이상이면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χ^2 의 경우에 표본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적합지수를 통해 최종 적합도를 평가하였다(Lee & Lim, 2013).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 그리고 위험통제성의 전체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모형의 적합도는 $\chi^2=435.818$, $p<.001$, GFI=.933, RMR=.052, RMSEA=.078, NFI=.959, IFI=.965, TLI=.956, CFI=.965로 나타나 χ^2 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 그리고 위험통제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74$, $t=5.163$, $p<.001$) 일반 대중들이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이해용이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감염병 관련 해당지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감염병 관련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염병 관련 지식은 위험통제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30$, $t=6.553$, $p<.001$) 일반 대중들의 감염병 관련 지식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노력을 통해 해당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

Table 2. Hypothesis testing result

	Estimate(β)	S.E.	t
H1. Risk Information Component→Knowledge	.174	.025	5.163***
H2. Knowledge→Risk Controllability	.230	.044	6.553***
H3. Risk Information Component→Risk Controllability	.045	.032	1.346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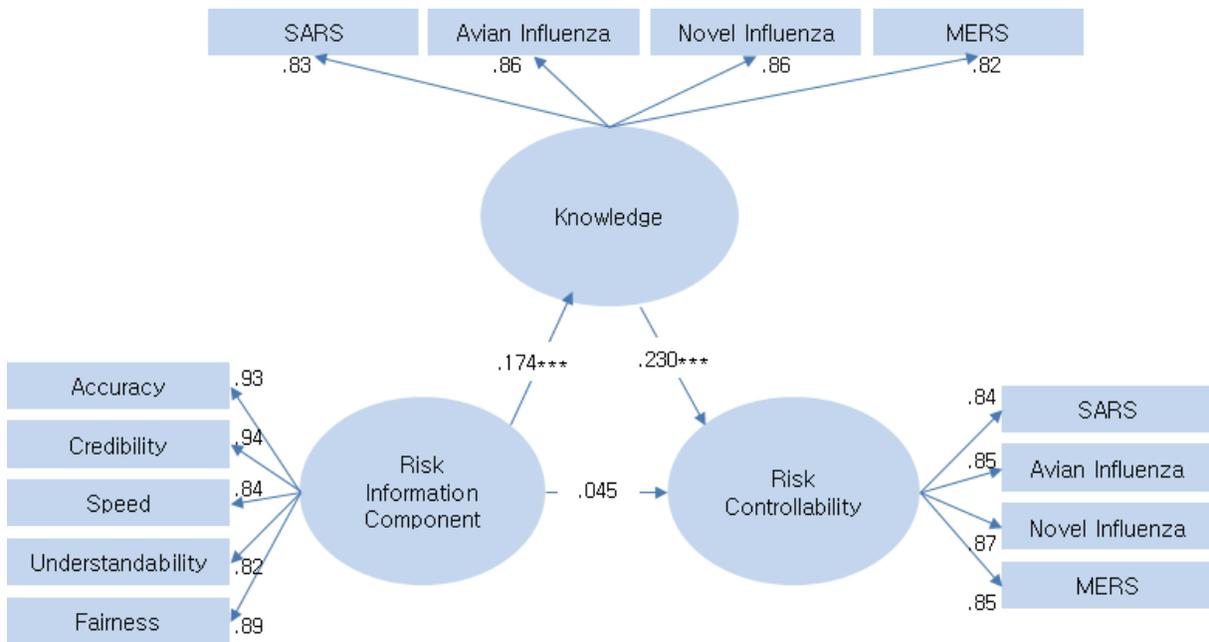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위험 통제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5, t=1.346,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중이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 즉 미디어가 감염병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위험정보가 정확하고(정확성), 신뢰할 만하며(신뢰성), 빠르고(신속성), 이해하기 쉬우며(이해 용이성), 공정하다(공정성)고 지각할수록 감염병에 대한 지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위험보도에 있어서 미디어가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층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하는가의 문제는 대중의 위험관련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Peters, et. al., 2009), 새로운 위험일수록 미디어를 통해 관련 지식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Jin & Han, 2011; Rousu, et. al., 2007)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미디어는 위험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수적인데, 공정 혹은 균형적인 시각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해당 위험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확산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될 수 있다(Willis & Ckunade, 1997).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9년 4월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H1N1) 사태나 2015년 5월에 발생한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미디어가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위험보도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방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Peters & Song,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가 감염병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보도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신뢰성, 신속성, 이해용이성, 그리고 공정성에 기초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일반 대중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높아짐으로써 일반 대중이 감염병 관련 위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일반 대중의 감염병 관련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식은 위험통제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중이 사스나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지식이 형성될 때, 해당 위험에 대한 통제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은 일반 대중의 위험인식이나 위험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지식의 결핍은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Peters & Song, 2001; Siegrist & Cvetkovich, 2000; Verbeke, 2008). 즉, 어떤 위험에 대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탐색이나 처리능력이 높기 때문에 폭넓은 정보처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지만, 지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낮은 위험통제성 지각(Bettman & Sujar, 1987)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위험에 대해 낮은 위험통제성을 지각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위험을 인식,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Helweg-Larsen & Shepperd, 2001). 실제로 2009년에 국내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미디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게 확산,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유발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감염병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이 높을수록 감염병 관련 위험통제성이 높아졌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이 위험통제성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위험통제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이 지식을 통해 위험통제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위험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보도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공정하게 보도될 때, 해당 위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을 형성시켜 낮은 위험통제성 지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사회에서 위험관련 의사소통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이 약하고, 일반 대중은 관련 지식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잦은 정보통제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전반의 위험소통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위험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결과임을 고려할 때, 미디어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Yun & Park, 2011), 흥미성 위주의 드라마틱한 내용구성, 단순사실 위주의 피상적인 보도, 심층성 부족, 부정확한 정보제공, 체계적 설명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Song & Lee, 2013). 따라서 미디어는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신속성, 이해 용이성, 그리고 공정성에 바탕을 두고 해당 정보를 구성,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과 같이 새로운 위험에 속하거나 일반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해당 위험에 대해 그 어떠한 왜곡이나 편견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감염병 관련 위험정보 구성요건을 5가지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일반화에 다소 제한적이고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을 보다 다양하게 상정하거나 혹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위험정보 구성요건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217).

References

- Alba, J. W. and J. W. Hutchinson. 2000. Knowledge Calibration: What Consumers Know and What They Think Kno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123-156.
- Bettman, J. R. and M. Sujan. 1987. Effects of Framing on Evaluation of Comparable and Non Comparable Alternatives by Expert and Novice Consumer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2): 141-154.
- Cha, Yong Jin. 2007. Risk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isk Analysis: With Focus on the Lay People in the Capital Region.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6(1): 97-117.
- Choi, Eun Jung and Myung Sun Chun. 2015. Response to Risk of Foot and Mouth Disease.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5(1): 271-315.
- Dobbie, M. F. and R. R. Brown. 2014.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Risk Perception,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ater Practitioner. *Risk Analysis*. 34(2): 294-308.
- Dohle, S., C. Keller, and M. Siegrist. 2012. Fear and Ange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Response to Mobile Communica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15(4): 435-446.
- Fischhoff, B., P. Slovic, S. Lichtenstein, S. Read, and B. Combs.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 9(2): 127-152.
- Fleming, K., E. Thorson, and Y. Zhang. 2006. Going beyond Exposure to Local News Media: An Information-Processing Examination of Public Perceptions of Food Safet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8): 789-806.
- Gellert, G. A., K. V. Higgins, R. M. Lowery, and R. M. Maxwell. 1994. A National Survey of Public Health Officers' Interactions with the Medi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271(16): 1285-1289.
- Gregory, J. and S. Miller. 1998. *Science in Public Communication. Culture and Credibility*. New York: Plenum.
- Helweg-Larsen, M. 1999. (The Lack of) Optimistic Biases in Response to the Northridge Earthquake: The Role of Personal Experienc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19-129.
- Jin, Hyun Joung and Dae Hee Han. 2014. Interaction between Message Framing and Consumers' Prior Subjective Knowledge Regarding Food Safety Issues. *Food Policy*. 44: 95-102.
- Ju, Young Kee and Myoung Soon You. 2011. Diagnostic or Prognostic? Analyzing the News Framing of H1N1 Coverag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5): 30-54.
- Kim, Hyo Jin and Yung Wook Kim. 2013. The Interaction Effects of Message Framing, Risk Types and Audience Expertise on Risk Perception in Risk Communication: An Analysis of Radiation Risk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7(1): 143-183.
- Kim, Hyo Sook. 2015.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Attributes of Media Health Information and Consumers' Intention to Health Car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Kim, In Sook. 2012.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erception of Knowledge, the Use of Communication Channels, the Third-Person Effect about Nuclear Accidents on Optimistic Bias: Fukushima Nuclear Accid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3): 79-106.
- Kim, Jung Hyun. 201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Relating Novel Influenza A(H1N1) and Perceptual Bias: Focusing on the Knowledge, Involvement, Media Credibility and

- Perceived Risk of H1N1.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3): 77-98.
- Kim, Won Je. 2009. Focused on Fatality and the Number of Patients: Created an Air of Anxiety rather than Caution. *Newspaper & Broadcasting*. 12: 72-75.
- Knight, J. and R. Warland. 2005. Determinants of Safety Risk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Rural Sociology*. 70(2): 253-275.
- Kwak, Chun Sub and Yang Hwan Lee. 2014. Media Usag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and Social Capital as an Information Delivery Channel: Focusing on the Effects on Pre-Preparedness Behaviors against Disas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4(3): 5-41.
- Lee, Min Young and Eun Yeong Na. 2016. The Influence of Risk Controllability and Information Format on Optimistic Bia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6(2): 184-213.
- McComas, K. A. 2006. Defining Moments in Risk Communication Research: 1996~2005.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1): 75-91.
- Otway, H. and B. Wynne. 1989. Risk Communication: Paradigm and Paradox. *Risk Analysis*. 9(2): 141-145.
- Park, Hyun Kap, Son Ho Kim, and Jung Ae Yang.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MERS Information and Issue Involvement on Perceived Information Influence, Disease Prevention and Information Sharing.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4(3): 7-48.
- Park, Jeong Hyun. 2015. Food Safety Awareness of Consumers in Korea Following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Peters, H. and Hae Ryong Song. 2001. *Risk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Peters, H., Hae Ryong Song, and Won Je Kim. 2009. *Risk Perception and Risk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Renn, O. 1992. Concepts of Risk: A Classification. In Krinsky, S. and D. Golding(eds.). *Social Theories of Risk*. Westport: Praeger.
- Renn, O. and B. Rohrman. 2000. *Cross Cultural Risk Perception: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Kluwer Academic Publisher.
- Rousu, M., W. E. Huffman, J. E. Shogren, and A. Tegene. 2007. Effects and Value of Verifiable Information in a Controversial Market: Evidence from Lab Auc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conomic Inquiry*. 45(3): 409-432.
- Siegrist, M. and G. Cvetkovicy.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19.
- Singer, E. and P. M. Endreny. 1993. *Reporting on Ris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jöberg, L. 1999. Risk Perception by the Public and by Experts: A Dilemma in Risk Management. *Human Ecology Review*. 6(2): 1-9.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 Slovic, P. 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19(4): 689-701.
- Slovic, P., B. Fischhoff, and S. Lichtenstein. 1982. Why Study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2): 83-93.
- Slovic, P., B. Fischhoff, and S. Lichtenstein.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 56: 183-203.
- Snyder, L. B. and R. A. Rouse.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 Song, Hae Ryong and Yoon Kyung Lee.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dia Coverage on Risk in National and Local News Papers: Focusing on the News of the Accident of a Toxic Gas Leak in Gumi.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8: 97-144.
- Song, Hae Ryong, Chan Won Kim, and Won Je Kim. 2014. Effects of Public's Media Dependency, Risk Severity, and Subjective Knowledge on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Cyber Crime.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5): 83-100.
- Song, Hae Ryong, Hang Min Cho, Yoon Kyung Lee, and Won Je Kim. 2012.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Structural Analysis and Domain Establishment of Risk Communication.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0(1): 65-100.
- Song, Hae Ryong, Won Je Kim, and Chan Won Kim. 2015. A Study on Public's Credibility, Risk Perception and Effectiveness

- of Nuclear Power Plant: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the Degree of Risk and Fear.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4): 123-140.
- Song, Hae Ryong. 2012. *Risk Communication & Media*.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 Song, Jong Gil and Dong Hun Lee. 2003. *Social Crisis and TV Journalism*. Seoul: Communication Books.
- Thompson, S. C. 1981. A Complex Answer to a Simple Question: Will It Hurt less if I Can Control It? *Psychological Bulletin*. 90: 89-101.
- Ulmer, R. R. 2001. Effective Crisis Management through Established Stakeholder Relationship Malden Mills as a Case Study.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14(4): 590-615.
- Verbeke, W. 2008. Impact of Communication on Consumer's Food Choices. *Proceeding of the Nutrition Society*. 67: 281-288.
- Wang, Jae Sun and Hyun Jung Lee. 2011. Multi-dimensionality of Perceptions on Science Technology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Public Percep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7(1): 145-185.
- Willis, J. and A. A. Okunade. 1997.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Connecticut: Praeger.
- Yang, Jung Eun and Soo Jin Kim. 2016. Cultural Peculiarities and Risk Perception among Korean Peopl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Risk Types. *Crisisonomy*. 12(6): 143-160.
- Yoon, Yeo Ym. 2014. Consumer Knowledge, Perceived Risks, and Risk Acceptance on 10 Hazardous Food Factors.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Yun, Moon Young, Bo Kyung Jwa, and Hye Jin Peak. 2013. Accuracy of Media Coverage on Risk Information: A Case of Carcinogenic Hazards. *Health Communication*. 7: 41-79.
- Yun, Sun Jin and Hyo Jin Park. 2011. The Social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Risk Caused by Oil Spills: Centering on the Media Coverage on the Voluntary Work during the Aftermath of the Samsung Heavy Industries-Hebei Spirit Oil Spill. *ECO*. 15(1): 7-51.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곽천섭, 이양환. 2014. 재난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과 정보 전달채널로서의 사회적 자본: 재난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3): 5-41.
- 김원제. 2009. 사망자와 환자 숫자에 초점: 경각심보다 불안감 조성. *신문과 방송*. 12: 72-75.
- 김인숙. 201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티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3): 79-106.
- 김정현. 2010. 대학생 집단의 신종플루에 대한 인식과 지각적 편향: 신종플루 지식에 대한 지각, 관여도, 보도신뢰도 및 지각된 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3): 77-98.
- 김효숙. 2015. 미디어 의료정보 품질속성과 의료이용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김영옥. 201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위험인식에서 메시징 프레임, 수용자의 전문성, 위험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방사선 위험을 중심으로 한 분석. *홍보학연구*. 17(1): 143-183.
- 박정현. 2015.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식조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갑, 김선호, 양정애. 2016.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보 노출과 이슈관여도가 정보의 영향력 지각, 예방행동,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3): 7-48.
- 송종길, 이동훈. 2003.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해룡, 김원제, 김찬원. 2015. 공중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신뢰성, 위험인식, 효용성에 관한 연구: 위험군 및 두려움 정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4): 123-140.
- 송해룡, 김찬원, 김원제. 2014.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디어의존과 위험 심각성 및 주관적 지식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0(5): 83-100.
- 송해룡, 이윤경. 2013. 국내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위험 보도에 관한 비교연구: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8: 97-144.
- 송해룡, 조항민, 이윤경, 김원제.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0(1): 65-100.

- 송해룡.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미디어와 공론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양정은, 김수진. 2016.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위험인식: 감정의 매개효과와 위험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2(6): 143-160.
- 왕재선, 이현정. 2011. 과학기술 위험인식의 다원성과 영향요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1): 145-185.
- 윤문영, 좌보경, 백혜진. 2013. 위험정보에 관한 미디어 보도의 정확성 연구: 발암물질 위험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7: 41-79.
- 윤순진, 박효진. 2011. 원유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정보 소통: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자원봉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5(1): 7-51.
- 윤여임. 2014. 식품안전의 10대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지식과 위험인식 및 위험수용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영, 나은영. 2016. 위험통제성과 정보행태가 낙관적 편향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6(2): 184-213.
- 주영기, 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진단과 예후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5): 30-54.
- 차용진. 2007. 위험인식과 위험분석의 정책적 함의: 수도권 일반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1): 97-117.
- 최은정, 천명선. 2015. 구제역에 대한 위험대응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25(1): 271-315.
- 한스 페터스, 송해룡, 김원제. 2009. 위험인지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스 페터스, 송해룡. 2001. 위험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Received: May 8, 2017 / Revised: Jun. 9, 2017 / Accepted: Jun. 13, 2017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 감염병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의 위험정보 구성요건과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내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SPSS ver. 21 프로그램과 AMOS ver.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이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디어의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지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반 대중의 감염병 관련 지식이 위험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식은 위험통제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 대중이 지각하는 감염병 관련 미디어의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위험통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감염병 관련 지식을 높이고, 감염병 관련 지식은 감염병에 대한 공중의 위험통제성을 높이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위험정보 구성요건, 지식, 위험통제성, 감염병

Profiles **Hae Ryong Song** : He received the doctor's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science from Westphalian Wilhelms-University of Münster.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in Sungkyunkwan University. His field of research is risk communication, risk management, risk acceptability and etc(imokwg@daum.net).
Won Je Kim : He received the doctor's degree in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He is a director of the U-plus research center and an adjunct professor in college of social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His field of research is risk communication and risk management(wonje5@daum.net).